



08. 자아탐색 I - 성격 이해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 및 심리 이해▪ MBTI의 8가지 선호경향 이해▪ MBTI성격유형별 16가지 특성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인간 심리 이해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MBTI검사를 이해하고, 선호경향과 유형별 특성을 지도할 수 있다.

<진로지도의 첫 걸음>

MBTI 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격 심리학 안에 MBTI 가 들어가는데요, 성격의 선호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성격 유형별로 특성이 나 기질,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올퍼트가 성격에 대한 정의를 참 잘해줬는데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내의 역동적 조직이다. 너무 어렵죠?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보면 첫 번째로 성격은 역동적 조직이다, dynamic organization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때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심리 신체적 체계. 우리가 성격하면 심리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신체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성격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유한 한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리학자,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을 떠오르는 것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 공부한다 하면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두 가지죠? 프로이트 이론을 깬 사람이나 이론을 추종하거나..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대를 살았던 프로이트와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프로이트 보다는 19살이 어리지만 프로이트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아버지 같은 존재가 융이었습니다. 융이 첫 번째로 정신학파의 초대학장을 하는데 융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보완해주지만, 융은 나중에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칩거하면서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비슷한 심리적 유형 이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마이애스 하고 브리그스라고 하는 모녀가 마이애스브리그스 본인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타입 인디게이트 (type indicate?)라는 성격유형 지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격 유형검사로서는 전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도구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심리학책을 200권정도 읽었는데요, 봐도,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모른다면 나의 본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나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늘 마주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의 친구들 사회 나가면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의 감정의 고리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역사나, 사회나 경제, 부의 흐름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다라면 세상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의 관심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많이 이야기 할 때 과일하고 스포츠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과일을 좋아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맛과 빛깔과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들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맛과 빛깔과 향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스포츠 무엇이 있습니까? 축구 야구 농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너도 좋아해야 된다. 영화의 장르도 티비의 프로그램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강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던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학생들에게 써보도록 하구요, 반대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그렇고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도 그렇고 다 다른 것입니다. 평소에 익숙한 것으로 해 보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낯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면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되면 느리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자신의 능력 역량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심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지도의 이해>

지금부터는 MBTI 16가지 성격유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ISTJ형은 실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 처리에 있어서도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집중력이 높으며 강한 현실감각으로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직무가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일을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위기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보이며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일관성 있고 관례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STP형은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형입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조직하기 좋아하는 반면 일과 관계

되지 않는 이상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며,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대체로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STP형은 관대하고 느긋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별로 선입관을 갖지 않으며 개방적입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있어 관용적이며,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잘 무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범을 적용하기 보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타협하고 적응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STJ형은 일을 조직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출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체계적, 논리적으로 사업이나 조직체를 이끌어가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태나 불분명한 상태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으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SFJ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헌신적입니다. 세부적이고 치밀성과 반복을 요하는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인내력이 높습니다. 이들이 가진 침착성과 인내력은 가정이나 집단에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SFP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따뜻함을 나타내며,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적입니다. 마치 양털안감을 넣은 오버코트처럼 속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이 따뜻함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SFP형은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 하며 타협적입니다. 선입견이 별로 없으며 개방적, 관용적이고 대체로 사람들을 잘 받아 들입니다.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알고자 하고 또한 열심히 참견하고 끼여듭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SFJ형은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습니다. 친절하고 재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인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심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며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일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감합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FJ형은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직관력으로 의미와 진실된 관계를 추구합니다. 뛰어난 영감으로 말 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가집니다. 독창성과 사적인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원칙을 생활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인화와 동료애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FP형은 마음이 따뜻하나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며,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강하고 성실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하여는 정열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NFP형은 열성적이고 창의적입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잘 시작합니다. 풍부한 충동적 에너지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일을 재빠르게 해결하는 술선수범의 자세와 상상력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열성파입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NFJ형은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으며 친절하고 재치 있고 인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고 성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봅니다. 공동 선을 위하여서는 대체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TJ형은 행동과 사고에 있어 독창적입니다. 내적인 신념과 비

전은 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강합니다.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단호하며, 때때로 문제에 대하여 고집에 썩습니다. 자심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TP형은 조용하고 과묵하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한 가치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며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 비평을 잘합니다. 일의 원리와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며 실체보다는 실체가 안고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NTP형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 처리방법들을 생각하는 일에 고무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복잡성과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에 의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종종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직업에서 ENTP형이 발견됩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NTJ형은 활동적이며 행정적인 일과 장기계획을 선호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며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목적달성을 추진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비능률적이거나 확실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필요로 할 때는 강하게 대처합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세종대왕 역사 저널 그날에 나가서 세종대왕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성격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MBTI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3분 이내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 시간은 없다고 해서 결국 촬영을 해서 4분 정도 됐지만 그 짧은 시간 이내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종은 INTJ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적인 유형인데요, 세종은 내향적인 성향으로 어렸을 때 중후, 진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 유형이다 보니깐 어떤 일을 할 때 직관적으로 잘 파악을 합니다. 사고 유형이다 보니깐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잘 하는 유형인데요, 그러다보니 그런 특성 유형상 사람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소통의 대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신하들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종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런 성격 유형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합니다. 그 대가로 통찰력과 직관력과 판단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세종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법을 바꾸게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무조건 옳다라고 표현해줍니다. 경이 옳소, 그리고 경을 칭찬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하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않겠소? 라고 논리적인 답변을 해 나가니깐 신하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박하지 못하고 거기에 나와 소통을 잘 해준다고 해서 소통의 대왕으로 까지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격하면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요, 나쁜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 성향들은 그대로 살리시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8가지 선호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향과 내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서로 주위 초점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

각형 어떤 정보 하나를 디테일 하게 수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고, 하나하나 보다는 직관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직관형이 있고요, 의사를 판단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형이 있고, 어떤 좋고 나쁨을 따라서 판단하는 감정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판단형이 있고, 즉흥적으로 해 나가는 인식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4가지 유형이 있어서 선호 경향이 4곱하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 검사를 MBTI 검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유형 하나하나를 알아볼게요. 외향형 내향형 좋고 나쁨이 있을 까요? 아마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 성격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에너지의 방향, 주위 초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외향은 바깥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외적 세계 외부의 활동, 폭넓은 관계, 소모를 하면서 자신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내향은 어떻습니까? 소모하기 보다는 내적 세계, 조금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소수와의 관계, 서서히 알려지는 유형을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지 알겠죠? 한편으로 좋다 안 좋다 할 때는 외향성이 지나치게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천재는 과 흥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미국에서 헌터스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잘 가르쳐 주면 굉장히 영재적 기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외향성으로 어울리는 직업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우리가 외향, 특히 내향을 안 좋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외향과 내향 특히 내향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이 많은데요, 내향은 수줍은 사람, 자폐성을 가진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외로운 늑대,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 이유가 서양인들 외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70~80%가 외향인이고, 반대로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60~70%가 내향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서양은 외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동양은 내향적인 부분에 긍정성이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외향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다 보니 내향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임들 보면 내향적인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분들이 기업적으로 많이 있고 하는데요, 내향은 조금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좋아하고, 이것이 고도의 산업 성장기에는 자신의 직업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았었는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수와 밀접하고 내적인 일들을 충실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 환경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직업의 특성 내향적인 직업의 특성 자신의 특성을 보고 어떤 부분을 살려가야 할지 어떤 부분은 보안해야 될지, 이렇게 구분해서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감각형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보를 하고요, 직관형은 직관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감각형은 나무를 본다 라고 합니다. 감각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아주 직접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이죠. 단계, 단계 성장해 나가는 정확한 업무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구요, 직관형은 미래 지향적이고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나가고 창의적이고, 남다른 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할지 어떤 부분을 보안해야 할지 알고요. 직관형이라고 하면 살려야 될 부분 또 여러분이 보안해야 될 부분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

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사고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형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보편적인 선, 어떤 삶의 의미와 맥락적인 상황적인 감정적인 것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고형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고형들이 아주 감정형들 사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자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과 직장을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막상 여성분들이 대체로 감정형이 많아서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을 못 읽으면 사고형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감정형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치 지향적이고 따뜻하고 온정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이런 직업들에 어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찾아보고요. 사고형, 자신의 사고형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강화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할지, 감정형이면 어떤 부분을 살려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지 찾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행동 양식입니다. 판단형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이고 정리정돈 규칙적으로 합니다. 아주 뚜렷한 방향 감각이 있고 지켜왔던 것에 일관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인식형은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자율적이고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짜면 즉흥적으로 인식형은 나가고 계획형은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미리 계획을 짜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형은 일을 할 때도 목표지향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일들을 선호합니다. 합리적인 일 결과지향적인 일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식형은 어떻습니까? 업무가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판단형이라고 하면 나의 성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그런 직업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 보셔야 하구요. 인식형이라면 여러분이 살려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격의 단점도 써보시고 장점도 써보시고 ,모든 성격에는 우리가 양면적인 부분을 다 봤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단점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출생에서부터 계속해서 변화하는데요, 청년기까지는 자신의 성향을 전문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년기 이후에는 반대 성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대체로 타고나는 유전적 영향과 더불어서 환경적 영향이 있구요, 여기에 성격의 여러 가지 부분에 가짜 유형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향 인데 내향 인척 내향인데 외향인척 이렇게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 자기 탐색을 이야기 나눴습니다.